

북중 지도사상 변화과정 비교 및 시사점

김원식 책임연구위원
kimphil@inss.re.kr

- I. 연구 목적 및 범위
- II. 중국의 지도사상 변화과정과 특징
- III. 북한의 지도사상 변화과정과 특징
- IV. 북중 지도사상 변화과정 비교 및 평가
- V. 정책적 시사점

국문 초록

본고의 주된 목적은 중국과 북한의 지도사상 변화과정 및 최근 추이를 각각 고찰하고 양자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와 더불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고찰이 향후 미중 이데올로기 경쟁과 충돌 양상, 북중관계 변화, 북한 지도사상 변화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중국과 북한의 지도사상 변화과정은 계승성, 사회주의 고수, 경제건설 강조, 민족/국가주의 활용, 유교 담론 활용 등의 공통점을 보여준다. 반면에 양자는 병렬적 누적을 통한 계승(중국)과 유일적 통합을 통한 계승(북한), 유연성을 통한 변화 수용(중국)과 경직성(북한), 대안 민주주의 모델의 제시 여부 등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차이의 핵심은 중국의 지도사상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연성이 북한의 지도사상 변화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상의 고찰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향후 미중 이데올로기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중국 모델을 통한 대안체제 경쟁, 주권 상호존중 및 인류운명공동체 논리 확산을 통한 국제질서 주도권 경쟁에 나설 것이다. 둘째, 북한은 이러한 이데올로기 경쟁 국면에서 사회주의 노선 고수라는 공통분모를 내세워 중국에 적극 편승할 것이다. 셋째, 향후 북한 내부적으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기초 하에 '사회주의의 길' 고수와 관련된 담론이 더욱 확산될 것이다.

핵심어: 중국 지도사상, 북한 지도사상, 미중 이데올로기 경쟁, 북중연대, 사회주의

목차

I. 연구 목적 및 범위

II. 중국의 지도사상 변화과정과 특징

1. 지도사상 변화과정과 특징
2.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내용과 특징

III. 북한의 지도사상 변화과정과 특징

1. 지도사상 변화과정과 특징
2.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내용과 특징

IV. 북중 지도사상 변화과정 비교 및 평가

1. 공통점
2. 차이점

V. 정책적 시사점

1. 체제 우월성 및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 격화
 2. 이데올로기 관련 북중 연대성의 강화
 3. 북한 내의 사회주의 담론 확산
-

I. 연구 목적 및 범위

- 본고의 주된 목적은 중국과 북한의 지도사상 변화과정 및 최근 추이를 각각 고찰하고 양자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 있음
 - 이와 더불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고찰이 △미중 이데올로기 경쟁과 충돌 양상 전망 △향후 북중관계에 대한 파급 영향 △북한 지도사상 변화 전망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함

- 미중 나아가서는 북미 사이의 이데올로기 경쟁 양상의 본질과 그것이 미칠 다양한 파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과 북한의 대항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경우 지도사상은 대항 이데올로기 구성의 핵심 근간과 논리를 제공
 - ※ 북한에서 지도사상은 “당, 국가 및 그 밖의 일정한 조직과 인민들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서 지도적 지침으로 되는 사상”으로 정의되고 있음¹⁾

- 선행연구와 관련, 중국과 북한 각각의 지도사상 변화과정 및 실태에 대한 연구는 다수 찾을 수 있으나 양국 비교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 중국의 지도사상 변화과정을 통시적으로 추적한 연구로는 김정계, “중국 사회주의의 미래-중공 지도이데올로기의 변용과정을 중심으로”(『현대사상』 제5호, 2009), 임규섭, “현대 중국의 정치체제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지속과 변화”(『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32(2), 2017) 등이 있음

1)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992.

- 중국특색사회주의 성격에 관한 연구로는 곽덕환, “중국특색사회주의 변천 연구”(『동아인문학』 제44집, 2018), 시진핑 사상을 다룬 연구로는 서석홍·김경환, “중국의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 당장 삽입의 의미와 평가”(『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주장환,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인식,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마르크스주의 연구』 15(3), 2018)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중국의 민주주의론, 주권론 등을 다룬 다수의 연구들 존재
 - 북한 지도사상에 대한 연구는 먼저 주체사상에 대한 방대한 연구 성과들이 존재, 대표적으로는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역사비평사, 2000)중 2. 북한의 사상과 체제, 신일철,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 쇠퇴』(생각의 나무, 2004) 등을 들 수 있음
 - 김정일 시대 선군사상에 대한 연구로는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한울, 2011)의 제4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생존전략과 통치이념 변화,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통일연구원, 2004) 중 II. 통치이데올로기의 지속성과 변화 등이 있음
 - 김정은 시대 통치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로는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한국과 국제정치』 30권 1호, 2014),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2013) 등이 있음
- 본고는 중국과 북한의 지도사상 변화과정 및 최근 추이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되, 북중 지도사상 변화과정과 최근 추이를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자함²⁾
- 또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최근 이데올로기 경쟁의 귀환 상황을 고려하여 이데올로기 경쟁과 관련한 구체적 파급 영향들을 전망해보고자 함

2) 북중 지도사상 변화과정의 보다 입체적 비교를 위해서는 각 시기별 국제관계, 북중관계,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불가피하지만 본고에서는 지도사상 자체의 변화과정과 변화의 논리에 국한하여 논의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II. 중국의 지도사상 변화과정과 특징

1. 지도사상 변화과정과 특징

- 중국공산당 당장(黨章)을 기준으로 보면, 지도사상은 → 맑스레닌주의 → 마오쩌둥사상 → 덩샤오핑이론 → “3개대표” 중요사상 → 과학적 발전관 →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누적적인 변화과정을 시현
- 신중국 출범 이후 중국공산당의 주요 지도자들은 모두 당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지도사상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추후 중국공산당 당장에 명기되었음
 - 그러나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당장에 자신의 지도사상을 명기한 경우는 마오쩌둥과 시진핑 두 경우뿐임
 - 덩샤오핑이론은 그의 사후인 1997년에, 장쩌민의 “3개대표” 중요사상과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의 경우는 각각 10년 재임 기간이 종료된 2002년과 2012년에 비로소 당장에 명기되었음

[표 1] 중국공산당의 지도사상 변화

| 당장 | 지도사상 관련 규정 |
|--------------|--|
| 7대 당장(1945) | 중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이론과 중국혁명의 실천을 통일한 사상인 마오쩌둥사상을 자신의 모든 업무 지침으로 삼는다. |
| 8대 당장(1956) | 중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 |
| 9대 당장(1969) | 중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사상을 지도사상의 이론적 기초로 삼는다. |
| 15대 당장(1997) | 중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을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 |
| 16대 당장(2002) | 중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3개대표” 중요사상을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 |
| 18대 당장(2012) | 중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3개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 |
| 19대 당장(2017) | 중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3개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 |

*1-6대 당장에는 지도사상 관련 언급 없음

- 19대 당장은 각각의 지도사상의 역사적 공헌과 기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³⁾
- 맑스레닌주의는 “인류 사회의 역사적 발전 법칙을 제시”하였으며, “그 기본 원리는 정확하고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서술
 -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수되어야만 함을 의미
- 마오쩌둥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에 결부”한 것으로 “중국 혁명과 건설에 관한 올바른 이론적 원칙과 경험을 총결산 한 것이고 중국 공산당의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로 규정
 - 이러한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 하에 중국 공산당은 전국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혁명 투쟁을 오랜 기간 진행함으로써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음
 - 즉, 마오쩌둥 사상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사회주의 기본 제도 확립, 사회주의 경제, 정치, 문화 발전에 역사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규정
- 덩샤오핑 이론은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1978) 이후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해 당의 사업 중심을 경제 건설로 이전하고 개혁개방을 실시, 사회주의 사업 발전의 새로운 시기를 개척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노선, 방침, 정책”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동시에 이는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 내에서 실천하고, 마오쩌둥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성과로 규정
 - 즉,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은 맑스레닌주의나 마오쩌둥 사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중국 혁명의 새로운 시기가 제기하는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노선을 계승 발전시킨 성과로 규정
 - 생산력 발전 요구를 중심으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양립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지만, 이는 여전히 중국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노선으로 규정⁴⁾

3) 당장 번역은 성균중국연구소 엮고 옮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지식공작소, 2018 부록 부분을 참조하였음.
 4) 이에 대해서는 이평식, “현대중국의 국가지도사상-혁명과 건설의 경험을 통해 본 덩샤오핑 이론”, 『21세기정치학회보』 11(1), 2001, p. 124 이하 참조.

- ‘3개 대표’ 중요사상은 “세계와 중국의 발전 및 변화가 당과 국가사업에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당 건설의 근본이고 집권의 토대이며, 힘의 원천”으로 규정
- 과학적 발전관은 “인본주의(以人僞本)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완전히 호응하는” 관점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는 지도사상”으로 규정
 -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전제로 ‘3개 대표’ 중요사상과 과학적 발전관이 각각 당 건설 및 사회주의 발전의 근본 노선으로 규정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과정을 보면, 중국 지도사상 변화과정의 특징은 1)계승성, 2)‘유연성’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계승성

- 중국공산당 일당 지배의 역사적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지도사상 변화도 혁신과 단절보다는 계승성을 강조
 - 주요 지도자들의 지도사상이 병렬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며, 후속 지도사상은 기존 지도사상의 성과를 전제하고 있다는 서술 구조
 - 일반적으로도 서양사상사는 ‘부친살해’를 통한 단절과 혁신의 역사였던 반면에 동양사상사는 끊임없이 ‘기원으로 회귀’하는 특성을 현시
-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으로 중국 역사에 거대한 폐해를 초래했던 마오쩌둥의 사상 역시 공칠과삼(功七過三) 논리로 지도사상 지위를 유지

2) 유연성

- 중국공산당의 지도사상 변화과정은 이론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수용 흡수하는 유연성을 발휘⁵⁾

5) 서진영은 중국적 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을 ‘도구주의’로 규정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마르크스주의 자체를 특정한 이론이나 교리로 보기보다는 당대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보았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지도사상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연성은 이러한 중국적 마르크스주의의 도구주의적 특성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폴리테이아, 2008, p. 84 이하 참조.

- 중국의 맑스레닌주의 수용 나아가서는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 자체는 처음부터 ‘중국 특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음
 - 도시 노동계급 주도의 혁명이 아닌 농민혁명,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하는 민족해방 혁명, 고유한 중국문화라는 전통의 구속성 등으로 인해서 중국 특색의 성격은 불가피
- 이러한 과정에서 지도사상 변화 역시 현실적 필요에 따라 맑스레닌주의와는 양립 불가능한 이론적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왔음
 - 덩샤오핑의 개혁개방론은 맑스레닌주의가 제시한 제국주의론, 사적 소유 폐지론 등과 양립 불가능한 요소
 - 선진 생산력(자본가), 선진 문화 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와 농민)의 근본이익을 동시에 강조한 장쩌민의 “3개 대표” 중요사상은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공산당원으로 수용, 이는 맑스레닌주의의 계급폐절 및 노동계급독재론과 양립 불가능한 요소⁶⁾
 -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강조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 등 민족주의 수용도 맑스레닌주의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엄밀한 의미에서는 양립 불가능한 요소
- 종합하면, 중국공산당의 지도사상은 당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서 이론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중국공산당 지배의 정통성 유지를 위해 지도사상의 계승성을 강조하여 온 것으로 평가

2.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내용과 특징

- 본인 집권 기간 내에 본인 명의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사상’의 지위로 당장에 삽입한 것은 시진핑 권력의 이례적인 지위를 상징
 - 기존 지도사상은 사후 평가를 통해서 그 반열에 오른 반면에 시진핑 사상은 미래를 위한 깃발로서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

6) 김정제, “중국 사회주의의 미래-중공 지도이데올로기의 변용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사상』 5호, 2009, p. 173 이하 참조.

- 이는 시대사적 차원에서 ‘시진핑 신시대’라는 시대규정을 통해서 정당화 되고 있음
 - 중국공산당 출범 이후 중국은 일어서고(站起來, 마오쩌둥), 부유해졌으며(富起來, 덩샤오핑), 이제 강력해질(強起來) 시대, 즉 시진핑 신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도사상이 필요하다는 논지⁷⁾
-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내용
 - 중국공산당의 임무 설정: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 대내 전략: 중국 공산당 영도 하에 5위 일체와 4개 전면, 세계일류 군대건설 등
 - ※ 5위 일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 통합 추진, 4개 전면: 전면적인 샤오강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 심화, 전면적인 법에 의한 통치,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
 - 대외 전략: ‘중국특색 대국외교’를 통한 신형국제관계 촉진과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 시진핑 사상의 중심 특징은 민족주의 강조와 사회주의 이념의 형해화로 평가
 - 사회주의 이념 형해화를 중국몽(中國夢), 중화민족대부흥 등 민족주의, 국가주의 강조와 전통사상(유교)과 문화 부각으로 보완⁸⁾
 - 여전히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적 지배에서 중국 공산당 일당지배와 영도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 사회주의 고유의 평등이념, 계급투쟁, 계급독재, 계획경제 이념 등은 희석화
- 생산력 발전을 앞세우며, 중국 사회 양극화 및 빈부 격차 문제는 주요 모순이 아닌 것으로 규정
 - 반면에 시장의 효율성, 지구화의 필요성,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7) Jiang Shigong(強世功), “Philosophy and History: Interpreting ‘Xi Jinping Era’ through Xi’s Report to the Nineteenth National Congress of the CCP”, trans. by David Ownby, p. 5.(<https://www.readingchinadream.com//Jiang-Shigong-Philosophy-and-History.html>, 검색일 2021.7.7)

8) 유교의 통치이념화 경향에 대해서는 조경란,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당성과 유교중국의 재구축-1, 유교의 통치이념화와 20 세기의 역사경험의 문제”, 『철학』 132, 2017 참조.

※ 예를 들면,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영향으로 계급투쟁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장기간 존재할 것이며 어떤 조건에서는 격화할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주요 모순이 아니다. 중국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적인 임무는 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하고 발전시켜 사회주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며 이를 위해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중 생산력 발전에 적응되지 않는 분야와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다.”(19대 당장, 총강)⁹⁾

- 최근 중국 당국이 ‘공동부유(共同富裕)’ 기치 아래 진행하고 있는 각종 조치들은 극심한 중국 내 양극화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로 평가
- 중국은 국력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대안적 민주주의 발전 모델 및 현대화(modernization) 경로로 제시하고 있음
 - 사회주의 민주 개념 하에 당내 민주주의와 협상(consultative) 민주주의 확대를 부각¹⁰⁾
 -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경로를 서구와는 다른 방식의 대안적 현대화 경로로, 즉 개발도상국들이 각자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고유한 방식의 현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¹¹⁾
-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부응하여,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을 내세우며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강조
- 종합하면,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념은 희석화되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부각되고 있으며, 중국 모델을 비서구적인 대안적 현대화 경로로 부각 시도 중

9) 그러나 피케티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불평등은 이미 심각한 상황임.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미국은 물론 유럽보다도 불평등의 정도가 덜했으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불평등이 급속히 심화되어왔기 때문. “1980년대 소득 불평등 수준은 스웨덴과 같은 가장 평등한 유럽 나라들에 가까웠다. 그런데 2010년대에는 그 수준이 미국에 더 가깝다. ... 사적소유 전체에서 상위 십분위의 몫은 1990년대 초에 약 40-50%로 스웨덴과 유럽 나라들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2010년대에는 70%로 미국에 가까우며 러시아보다 못하지 않은 수준이다.”(토마 피케티, 안준범 역, 『자본과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2020, p. 678)

10) 중국의 협상민주 대두 과정에 대해서는 이희옥, “중국식 민주주의의 진화: 협상민주주의 도입의 의미와 한계”, 『국제정치논총』 제54집 2호, 2004 참조.

11) 이는 서구적 근대만을 유일한 근대화 경로로 근대화의 최종 목적지로 간주해 온 기존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다중근대론(Shmuel N. Eisenstadt, *Multiple Modernities*, Routledge, 2002), 중층근대론(김상준, 『맹자의 딸, 성왕의 피』, 아카넷, 2016) 등의 이론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

Ⅲ. 북한의 지도사상 변화과정과 특징

1. 지도사상 변화과정과 특징

- 북한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지도사상은 → 맑스레닌주의 →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 주체사상 →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 김일성-김정일주의 순으로 변화하여 왔음
- 북한은 3차 당대회(1956) 당규약 개정을 통해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규정
 - ※ “조선노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북한은 5차 당대회(1970) 당규약 개정을 통해 맑스레닌주의를 북한 현실에 적용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규정
 - 맑스레닌주의를 북한 현실에 적용하였다는 주장은 맑스레닌주의를 전제로 하되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모두를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조선노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구현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
 - 이후 1972년 헌법 제4조 역시 동일한 문구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사상을 서술
- 북한은 6차 당대회(1980) 당규약 개정을 통해 맑스레닌주의를 소거하고 주체사상만을 북한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
 - ※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이후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만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사상으로 규정

- 북한은 2009년 헌법 제3조를 통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사상으로 규정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그러나 북한은 헌법상의 지도사상 변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당규약 개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서술 유지
 - ※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 대신에 북한은 2010년 개정 노동당 규약에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규정
 - ※ “조선노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
 - 종합하면, 2009년 헌법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지도사상으로 병기한 것을 당규약에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신하였다고 평가해볼 수 있음

- 북한은 3차 당대표자회(2012) 당규약 개정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
 - ※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 이러한 지도사상 변화는 2019년 개정 헌법 제3조를 통해서 반영되었음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북한은 8차 당대회(2021.1)를 통한 당규약 개정에서 지도사상 관련 규정을 기존대로 유지
 - 이와 더불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정식화
 - ※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한다.”
 - 이를 통해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은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전환되었으며, 과거 선군사상 등장 사례를 고려할 때 향후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 시대 통치 이데올로기로 더욱 부상할 전망

[표 2] 북한 헌법상의 지도사상 변화과정

| | 헌법상의 지도사상 관련 규정 |
|--------------|---|
| 1972년 헌법 제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 1992년 헌법 제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 2009년 헌법 제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 2019년 헌법 제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1948년 헌법에는 지도사상 관련 언급 없음

[표 3] 북한 당규약 상의 지도사상 변화과정

| | 당규약 상의 지도사상 관련 규정 |
|----------------|--|
| 3차 당대회(1956) | “조선노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 5차 당대회(1970) | “조선노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구현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 |
| 6차 당대회(1980) |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 3차 당대표자회(2012) |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

- 이러한 변화과정을 보면, 북한 지도사상 변화과정의 특징은 1)계승성, 2)경직성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계승성

- 북한의 수령세습 및 조선노동당 일당 지배 구조로 인해서 수령이 바뀌더라도 선대 수령의 지도사상과의 근본적 단절이 불가능
 - 권력승계의 정통성을 핵심으로 하는 수령체제에서 선대수령의 사상에 대한 근본적 변화는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
 - 사상체계 측면에서 세계관, 사회역사관, 인간관을 아우르는 ‘포괄적 교리(Comprehensive Doctrine)’로 구성된 주체사상의 체계를 이후의 지도사상이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

- 북한의 지도사상 계승 방식은 병렬적 누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유일적 통합을 통한 계승 형태
 - 맑스레닌주의는 주체사상에 의해 지양되는 방식으로 소거 및 통합¹²⁾
 - 주체사상(김일성)과 선군사상(김정일)이 병렬적으로 누적된 것은 2009년 헌법의 경우에만 발견되며, 이후 이는 다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통합
 - ※ 물론 김일성, 김정일 두 수령의 이름이 병기되었다는 점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의 병렬적 누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북한 당규약(2021.1) 상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되며 김일성, 김정일 각각의 독립적 지도사상으로 서술되거나 평가되고 있지 않음

2) 경직성

- 수령제로 인해 계승성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지도사상의 유연한 변화를 제약
 - 정권세습으로 인해 지도부 교체 경험이 부재하였으며, 개혁개방을 거부함으로써 근본적인 노선 변화도 부재
 - 중국과 달리 기존 지도사상과의 모순을 감내하고 시대변화를 과감하게 수용하려는 유연성 부족

12) 맑스레닌주의는 주체사상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회주의 이념의 보편성보다는 북한사회의 특수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선군사상의 등장은 주체사상과의 단절이나 혁신이라기보다는 현실 사회주의 몰락 속에서 위기에 처한 북한 체제의 생존전략 차원의 대응
 - 선군사상 역시 최근 그 활용 빈도의 감소로 볼 때 일종의 소거 상황으로도 평가 가능¹³⁾

2.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내용과 특징

-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최초로 정식화(2012.4.6)
 - 이를 통해 김정은 권력세습을 정당화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공식 지도사상으로 지속
- 김정은은 4차 당세포 비서대회 연설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규정(2013.1.29)
 - 이후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으며, 마침내 8차 당대회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정식화
- 동년 1월 개정 북한 당규약에서도 사회주의 노선과 공산주의 이상을 부각
 - 조선노동당의 임무 관련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최종 목적으로는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제시
- 개정 당규약에서는 중국 당장의 경우와 달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차별성이나 각 지도자별 지도사상의 역사적 공헌에 대한 기술과 평가 부재
 - 김일성, 김정일 각각의 시대적, 역사적 공헌과 지도사상 발전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존의 서술 자체를 전면 삭제
 - 주체사상이라는 기원으로의 회귀 경향 현시
 - ※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 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13) 선군 용어의 활용 빈도 저하에 대해서는 김원식·이기동,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 동향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통권 93호, p. 4 참조.

IV. 북중 지도사상 변화과정 비교 및 평가

1. 공통점

- 북중 지도사상 변화과정은 공통적으로 계승적 특성을 현시
 -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 일당지배 지속의 역사적 정당성 확보 차원
- 북중 지도사상은 공통적으로 맑스레닌주의의 주체적 수용 표방
 - 중국혁명 자체의 특수성은 물론 중소이데올로기 논쟁 이후 중국은 독자노선 강조
 - 중소 이데올로기 갈등과 문화혁명 시기 북중 갈등을 거치며 북한도 주체노선 강조, 단 북한은 이후 맑스레닌주의 자체를 지도사상에서 소거
- 북중 지도사상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노선 고수
 - 중국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북한은 우리식사회주의를 고수
 - 중국은 시장경제의 적극 수용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수용은 강력 거부
 - 중국공산당 및 조선노동당의 일당지배가 지속되는 한 이는 불가피한 선택
- 북중 지도사상은 공통적으로 경제건설 집중 노선 채택
 -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은 생산력 우선 발전 노선 지속
 - 김정은도 인민대중제일주의 기조 하에 ‘경제건설총력집중’(2018.4) 노선 표방
- 북중 지도사상 변화는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의 형해화 및 민족-국가주의 활용 경향 시현
 - 중국과 북한 내부의 시장화와 사회양극화 등으로 사회주의 이념의 통치 정당화 기능은 훼손
 - 이를 만회하는 차원에서 중국은 중국몽 및 중화민족대부흥, 북한은 우리민족, 우리국가 제일주의 담론 등을 동원

- 유교통치담론의 활용과 소환
 -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유교통치담론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왔으며, 특히 시진핑 등장 이후 유교통치담론 적극 확산¹⁴⁾
 - 북한은 유교담론 자체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효(忠孝) 강조는 물론 이민위천(以民爲天), 인덕정치(仁德政治), 대가정(大家庭) 등의 유교전통 정치구호 적극 활용

2. 차이점

- 병렬적 누적을 통한 계승(중국)과 유일적 통합을 통한 계승(북한)
 - 중국 지도사상은 시대변화 및 지도자 변화에 따라 각이한 지도사상을 병렬적으로 누적
 - 북한 지도사상은 지도자 및 지도사상별 역사적 기여나 공헌에 대한 별도 기술 없이 기원, 즉 주체사상으로 회귀하는 유일적 통합 방식
- 중국 지도사상 변화에서 발견되는 유연성이 북한 지도사상 변화과정에서는 부재
 - 중국은 덩샤오핑이론, “3개대표” 중요사상을 통해 당대 역사가 요구하는 개혁개방, 시장도입, 자본가 인정 요구 등을 유연하게 수용
 - 북한은 김정일 시기 선군사상을 통해 북한의 기존체제 고수를 선택하게 되면서 지도사상 내 근본적인 변화 부재
 - 이는 중국의 지도부 교체 및 집단지도체제 채택과 북한의 세습 수령제 지속이라는 정치 구조 차이의 산물로 평가
- 민주주의 대안 모델 제시 여부
 - 중국은 전통 유교사상 활용 및 서구 민주주의 이론 변용 등을 통해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발전 모델 모색(依法治國과 以德治國의 결합, 협상 민주 도입 등)
 - 북한은 수령제 하의 기존 인민민주 노선 고수

14) 시진핑의 공자묘 참배(2013), 병상에 있던 대유학자 탕이제(湯一介) 교수 예방(2014), 공자탄생 2565주기 기념회의 담화(2014) 등.

- 이는 개혁개방 이후 시민사회와의 일정한 타협을 모색해 온 중국과 교조적 수령주의를 지속해 온 북한 정치문화 차이에서 기인¹⁵⁾
- 역사적으로 보면, 신문화운동과 중화민국 시기 민주주의 실험을 경험한 중국과 일제 식민통치에서 곧바로 사회주의 국가로 이행한 북한 경험에서의 차이도 중요 요인 중 하나
- 종합하면, 지도사상 변화과정에서 중국의 유연성과 북한의 경직성이 대비되고 있음
 - 이는 일찍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중국과 폐쇄적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해 온 북한의 상황을 반영

V. 정책적 시사점

- 최근의 전지구적 이데올로기 경쟁 복귀 국면을 고려할 때, 북중 지도사상 변화과정 및 최근 추이에 대한 이상의 고찰로부터 아래와 같은 시사점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1. 체제 우월성 및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 격화

- 미중 대결이 격화되면서 군사, 기술 영역을 넘어 이데올로기 경쟁도 가속화
 -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 회복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강조하며 대중 견제 시도
 - 중국도 중국식 민주와 주권 존중 논리를 내세우며 미국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적극 대응

15) 유사, 『북한과 중국 체제의 비교연구-정치문화적 접근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p. 76 이하 참조.

- 미중 이데올로기 경쟁은 첫째, 체제경쟁 수준, 둘째, 국제질서 주도권 경쟁 수준에서 전개될 것임

1) 미중 사이의 체제 우월성 경쟁은 자유주의 VS 권위주의, 서구 모델 VS 중국 모델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신장, 홍콩, 티베트의 인권 침해 상황 및 사이버 감시 체제 구축에 대한 비판 지속
 - 특히 위구르족 상황을 범죄 중의 범죄인 제노사이드(genocide)로 규정하며 미·EU·영국 캐나다 4국 공동으로 對中 인권 제재 실행(3.22)
- 중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과, 지속적 경제 성장 성과 등을 기초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국가통치능력 우월성 부각 시도

2) 국제질서 주도권 경쟁은 인권의 보편성 VS 주권 상호존중, 보편가치 주도권 다툼의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내세운 동맹 강화를 통해 대중 압박 및 견제
 - 양자(미일, 한미 정상회담) 및 다자(G7, 민주주의정상회의) 경로를 통해 중국의 인권 침해, 규칙기반 국제질서 위협에 대한 비판 지속
- 중국은 한편으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통해 인류운명공동체 논의를 확산하고, 다른 한편으로 주권존중을 요구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 추진¹⁶⁾
 - 중국은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확대하면서 서구 선진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백신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을 확산하며 보편가치 선점을 위한 경쟁도 적극 시도할 것임
 - 중국은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지역 비자유 진영 국가들과의 국제적 연대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 탈(脫)식민 담론과 유교 전통을 활용하는 정체성 정치도 활용

16) 중국의 주권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아세안 국가들의 호응에 대해서는 신봉수, “국제규범에 대한 전략적 사회구성: 주권,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3호, 2007, p. 63 이하 참조.

- 그러나 현재 미중 이데올로기 경쟁은 과거 냉전 시대 이데올로기 경쟁과는 근본적 차이점을 시현
 - 과거 자유주의 VS 공산주의 대립과 달리 현재 이데올로기 경쟁은 원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두 적대적 이념 사이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공존 가능한 이념들 사이의 경쟁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¹⁷⁾
 - 크리스텐슨은 첫째, 전지구적 이데올로기 경쟁의 부재, 둘째, 분리된 경제 블록의 부재, 셋째, 적대적 동맹 체계의 부재라는 점에서 현재 미중 대결을 ‘신냉전’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¹⁸⁾
- 그럼에도 미중 전략경쟁이 강화되면서 정당성과 명분 확보 차원의 이데올로기 경쟁과 대결은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 미국의 공세적 가치 외교로 향후 국제규범 및 중국 내 인권 관련 사안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이데올로기 관련 북중 연대성의 강화

- 북한 역시 미국의 북한체제 비판과 인권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데올로기 경쟁 국면에서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편승할 것임
 - 이미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중국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에 맞서 중국과의 적극적인 연대 의지를 표명하였음
 - ※ 당시 북한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중국공산당 공격을 조선노동당과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대응¹⁹⁾

17) Jiang Shigong(姜世功)은 중국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고유한 현대화 경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하며, 그런 점에서 현대화에 대한 중국식 해결책으로서의 중국특색사회주의는 과거 소비에트 모델과는 달리 서구 자본주의 모델을 대체하기 위한 전면적 도전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Philosophy and History”, p. 15/26. 광덕환 역시 “...중국의 사회주의의 지향점은 순수하게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주의를 타도하여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소련식 국제공산주의의 목표 보다는 자신들의 주권 회복, 영토완정, 민생 안정 등에 더 나아가 중국의 부흥에 중점을 두고 있는 21세기 신시대의 중화주의(中華主義)적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중국특색사회주의 변천 연구”, 『동아인문학』 제44집, 2018, p. 146.

18) Thomas J. Christensen, “There Will Not Be a New Cold War”, *Foreign Affairs*, 2021.3.24.

19) 조선노동당 국제부 대변인 담화, 『노동신문』, 2020.6.3. p. 2.

-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공세에 맞서 사회주의 노선 고수라는 공동 명분을 중심으로 하는 북중 밀착 및 연대 가능성 증대
 - 이데올로기 차원의 연대가 북중관계 밀착을 촉진하는 한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음
 - 김정은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계기 축전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 ‘공동의 위업’으로 강조하였음²⁰⁾
- 그러나 중국과 북한 지도사상의 내부적 차이로 인해 양국 사이의 사회정치적 이질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 개혁개방 수용과 거부, 세습지배 거부와 용인 등의 근본 차이

3. 북한 내의 사회주의 담론 확산

- 8차 당대회(2021.1)를 통한 당규약 개정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한 것을 볼 때
 -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일 시대 선군사상에 버금가는 김정은 시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미중 이데올로기 경쟁 국면에서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 고수 속에서 ‘사회주의의 길’을 지속 강조할 것으로 전망
 -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은 ‘주체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지속 강조해왔는바, 중국특색 사회주의 노선과의 공명 하에 사회주의 노선 고수를 지속 강조할 것임
 - 북한이 소거했던 공산주의 문구를 금번 당규약 개정에서 다시 명기하고, 내부 선전에 적극 활용하는 것²¹⁾도 이러한 연장선으로 평가

20) 『노동신문』, 2021.7.1. p. 1.

21) 동태관, 정론, “인민의 심부름꾼당”, 『노동신문』, 2021.5.14. p. 1. “오늘 우리의 생활과 투쟁에는 공산주의 이상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함께 공산주의 사회로 가자는 구호가 전인민적 지향으로 힘차게 울리고 있다”, “공산주의는 우리 인민의 이상이며 공산주의 사회를 반드시 건설하는 것은 우리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투쟁목표이다.”

참고문헌

- 곽덕환. “중국특색사회주의 변천 연구”, 『동아인문학』 제44집, 2018.
-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30권 1호, 2014.
- 김원식·이기동.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 동향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통권 93호, 2020.
-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아카넷, 2016.
- 김정계. “중국 사회주의의 미래-중공 지도이데올로기의 변용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사상』 제5호, 2009.
-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2013.
- 동태관. 정론, “인민의 심부름꾼당”, 『노동신문』, 2021.5.14.
-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2004.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992.
- 서석홍·김경환. “중국의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 당장 삽입의 의미와 평가”,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폴리테이아, 2008.
- 신봉수. “국제규범에 대한 전략적 사회구성: 주권,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3호, 2007.
- 신일철.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 쇠퇴』, 생각의 나무, 2004.
-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이평식. “현대중국의 국가지도사상-혁명과 건설의 경험을 통해 본 덩샤오핑 이론”, 『21세기정치학회보』 11(1), 2001.
- 이희옥. “중국식 민주주의의 진화: 협상민주주의 도입의 의미와 한계”, 『국제정치논총』 제54집 2호, 2004.
- 임규섭. “현대중국의 정치체제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지속과 변화”,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32(2), 2017.
-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한울, 2011.
- 조경란.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당성과 유교중국의 재구축-1, 유교의 통치이념화와 20세기의 역사경험의 문제”, 『철학』 132, 2017.

조선노동당 국제부 대변인 담화(2020.6.3). 『노동신문』, 2020.6.3.

주장환.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인식,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주의 연구』 15(3), 2018.

토마 피케티, 안준범 역. 『자본과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2020.

Christensen, Thomas J.. “There Will Not Be a New Cold War”, *Foreign Affairs*, 2021.3.24.

Eisenstadt, Shmuel N.. *Multiple Modernities*, Routledge, 2002.

Jiang Shigong(强世功). “Philosophy and History: Interpreting ‘Xi Jinping Era’ through Xi’s Report to the Nineteenth National Congress of the CCP”, trans. by David Ownby, p. 5.(<https://www.readingchinadream.com//Jiang-Shigong-Philosophy-and-History.html>, 검색일 2021.7.7)

Abstract

Comparison of Change Process in North Korea and China's Guiding Ideology and Its Implications

Woen Sick Kim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e process and recent trends in the guiding ideology of China and North Korea respectively and to compare the two to reveal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addition, in the final conclusion section, these considerations suggest implications for future U.S.-China ideological competition, changes in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changes in North Korea's guiding ideology. The change process of the guiding ideology of China and North Korea shows commonalities such as succession, adherence to socialism, emphasis on economic construction, utilization of nationalism, and the use of Confucian discourse. On the other hand, the two differ in succession through parallel accumulation(China) and succession through unitary integration(North Korea), acceptance of change through flexibility(China) and rigidity(North Korea), and whether alternative democratic models are proposed. The key difference is that the flexibility in China's guiding ideology change process is not found in the North's guiding ideology change process. The final conclusion presen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based

Abstract

on the above consideration: First, in the future, China will compete for alternative systems through the Chinese model and for international order leadership through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and the spread of logic of the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all humankind. Second, North Korea will actively ride on China's side in this ideological competition, citing a common denominator of sticking to the socialist line. Third, in the future, discourse on the “path of socialism” will spread further inside North Korea under the People-first Doctrine.

Keywords: Chinese guiding ideology, North Korean guiding ideology, U.S.-China ideological competition, North Korea-China solidarity, socialism

INSS

전략보고

October 2021. No.135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 02-6191-1000 📠 02-6191-1111 🌐 www.inss.re.kr